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0> 광주 찾은 '꿈따리 유랑단'

# '희망 보따리' 들고가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죠



8일 고통정보산업고를 찾은 '꿈따리 유랑단' 단원들과 가수 박상민(왼쪽에서 세번째)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늦더위가 한창이던 8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에 위치한 고통정보산업고(광주소녀원)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이름하여 '꿈따리 유랑단.'

강단에 무대를 마련한 유랑단은 흥겨운 음악과 춤, 다큐멘터리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이들은 고통정보산업고 학생들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등 약 300여명. 다소 경직돼 있던 원생들은 공연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조금 독특했다. 어린 시절 '혹부리 영감'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안면 기형이 심한 심보준씨는 빼어난 노래와 춤 솜씨를 자랑했고, 미술 연습중의 폭과 사고로 손을 잃은 미술사 최성진씨는 한 손으로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멋진 미술을 선사했다. 한 손 무에타이 선수인 최재식씨는 멋진 발차기를 선보였고 화려한 휠체어 댄스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룹 '클론' 출신의 강원래(39)씨다. 강 씨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꿈따리 유랑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꿈따리 유랑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에 선정돼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특별 공연을 진행 중이다.

꿈따리 유랑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들은 많다. 강 단장의 20년 지기로 1급 시각장애인 기흥주씨가 강 씨와 함께 공동으로 연출을 맡아 배우들의 발자국 소

리를 들으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강단장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의 참여도 높다. 이날 공연에는 먼길을 달려온 박상민씨가 '해바라기', '청바지 아가씨' 등의 히트곡을 열창,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박씨는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 훗날 꼭 잘 돼서 만나자"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씨 이외에도 매번 행사 때마다 박미경·홍경민·홍복기·채연·나무자전거 등이 무보수로 힘을 보태고 있다.

## 한 손 미술사 등 장애인 주축 극단 박상민 등 연예인도 내 일처럼 도와 문화공연으로 소외된 이웃들 찾아

또 작품에 등장하는 강단장의 청소년 시절은 클론 댄스 스텝 제작인 중고생들이 대역으로 연기하고 강 씨는 휠체어를 타고, 춤과 노래를 부른다. 단순한 나열식 공연을 피하기 위해 꿈따리 유랑단은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주인공 강원래는 법무부 직원으로 부터 보호관찰중이거나 소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장애인들로 구성된 문화 공연을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장애인인 자신이 의미있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회

의하던 강원래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자 마음먹고 오디션을 통해 팀을 구성,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 주된 줄거리다.

강 단장은 무대에서 순탄치 않았던 자신의 청소년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교통사고 후 재활 과정을 담은 다큐 등을 통해 잃었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소개했다.

"오솔 바다가 미끄러워 휠체어 댄스를 추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더 좋은 공연장도 있고, 더 좋은 무대도 있지만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꿈을 갖고 꼭 다시 시작하세요. 저희를 처럼."

수차례 좌절을 겪었던 강씨와 출연진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 어떤 말보가 깊게 다가왔다.

기획을 맡고 있는 문이식(경북대 심리학과)씨는 "꿈따리 유랑단은 장애인들이 수혜자가 아니라, 문화적 생산력을 갖춘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공연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문의 02-593-90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 ■ '꿈따리 유랑단' 이끄는 강원래 단장

## "신나는 예술여행 쪽~ 계속될 겁니다"

8일 리허설을 마친 '꿈따리 유랑단' 강원래(39) 단장과 강단 로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고통정보산업고 학생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똑같은 유니폼에 짧게 깎은 머리. 인터뷰하는 모습을 힐끗 바라보던 아이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인상 피고 좀 웃어라. 왜 그렇게 굳어있냐."

강 단장이 웃는 얼굴로 먼저 말을 건네자, 한 두명이 인사를 꾸벅하고 악수를 청했다. 뒤 이어 몇몇이 또 다가와 손을 덥석 잡았고, 강 단장은 미소를 보였다. 강 단장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꿈따리 사바라', '초련' 등을 히트시키며 한국 연예계를 주름잡던 강 단장은 지난 2000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었다.

좌절도 있었지만 끝없는 재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잡았고, 지금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펼치며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꿈따리 유랑단'은 가수와 댄스 경험을 갖고 있던 그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 꿈을 꾸기 위해 만든 단체다.

"제가 4년전부터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며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어요. 제 3자의 불법유턴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무언가 느끼길 바랬죠. 보통 법대 교수나 경찰서장 등이 와서 강의할 때는 참 따분해 하던데 제가 강의를 하면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무대 경험도 있겠다 차라리 강연 보다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자 싶었죠."

장애인들로 구성된 '꿈따리 유랑단'을 만든 강 단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



고 한화 등 대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협찬도 받았다.

"한번 공연 할 때마다 40~50명이 움직이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출연료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모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뛰고 있어요. 오늘 공연 온 상민이형(가수 박상민)도 그렇고, 구준엽이나 홍복기도 그렇고 모두 제가 부탁하면 무조건 달려와 주니까 행복하죠. 운영이 힘들더라도 유랑단의 공연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겁니다."

유랑단 공연에서 강 단장은 극중 진행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전출연진과 함께 휠

체어 댄스를 추고 히트곡을 직접 들려준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 사람들 사이에 나갈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며 정말 힘들어했어요. 싸인해 달라고하면 하면 종이를 집어던지고는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참 밝으시네요.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장애인들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또 지금 소년원에 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편견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 단장은 장애를 딛고 공연에 나선 유랑단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댄스가수로서 절정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확장 시절에도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 때마다 주변에는 나와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춤'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저를 있게 한 거예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 愛 !! 살고싶다**  
오랜 기다림의 행복!!  
'담양수북'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광주 동북권 개발  
- 담양, 담양, 담양지구 10~15만 호도

■ 안전하고 잘 보육하고, 1인1차량 도로

■ 문화적 여흥, 휴식처를 갖춘  
- 전통마을, 생활마을 등

■ 최첨단 시설, 쾌적한 환경

■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등  
-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분양 가능

■ 분양가 면적 10~15만 호도, 100% 분양 가능

■ 모사업 등  
- 담양수북지구지 - 문화관광체육부

시책 : (주) 동북스타일  
시공 : (주) 시명개발  
www.dongbukstyle.com  
문의 061-251-4000 / 061-363-2348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명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신앙부요와 영신의 묘지를 놓기 관리하십니까?

1. 신앙부요와 영신의 묘지를 놓기 관리하십니까?  
2. 신앙부요와 영신의 묘지를 놓기 관리하십니까?

문의 02-222-1111, 02-222-1112, 02-222-1113, 02-222-1114